

전주시 공연·행사 정보 '한눈에'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한바탕전주' 앱 리뉴얼 작업 착수... 문화달력도 개선키로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앞으로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onju.go.kr) 또는 '한바탕 전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각종 문화 행사와 공연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각종 문화공연과 행사에 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 산하기관과 각각의 문화관련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연 및 행사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행사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을 맞이한 전주가 각종 문화관광 상품들을 관광객들에게 빠짐없이 소개해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한바탕전주' 앱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날짜별·시간대별로 쉽게 공연·행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달력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킷 메뉴를 전통의 멋이 담긴 베너로 개선했으며, 다양한 외

국인 관광객의 방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어 선택 탭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최상단에 올려놓았다. 또, 홈페이지 상단 목차의 '맛있는 전주'도 '음식·숙박'으로 구분해 정보의 성격이 명확히 하고, 최근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광택시'와 스토리 있는 관광을 위한 '해설 여행안내', '추천! 관광코스' 등도 메뉴에 반영했다.

'한바탕전주' 앱의 경우, 시는 관광 분야의 '문화달력' 메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공연·행사 정보를 기존 문화달력의 입력방법 및 뷰어형식을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게끔 다채롭게

변경해 직관적이면서 깊이 있는 공연·행사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관광도시 전주라는 명성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실시간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 중인 '한바탕전주' 앱은 기존의 '한바탕전주'와 '시정알리미', '식도라전주'를 통합한 앱으로, 전주의 시정과 관광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 혁신동 행정구역 주민투표 '덕진구' 선택

전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혁신동(가칭)이 배치될 행정구역 '덕진구'를 선택했다.

지난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혁신도시 내 11개 투표소에서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유권자 1만1,776명의 43.7%인 5,146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덕진구를 선택한 유권자는 2,939명(57.11%), 완산구를 선택한 유권자는 2,207명(42.79%)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무효표는 5표를 차지했다.

이날 투표는 혁신동에 편입될 지역에 내달 10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주민(1998년 10월 18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마련하고 약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11월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선박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농가와 대형 세탁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빼돌린 기름을 다룬 업체에 도착하는 모습

선박용 기름 빼돌려 부당이득 챙긴 일당 적발

A업체 대표 등 11명·업체 2곳 입건... 기름 51만ℓ 되팔아 2억원 부당이득 취해

선박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농가(農家)와 대형 세탁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 공사와 물류운송에 쓰이는 기름을 몰래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A업체 대표 채씨(女, 54, 여수) 등 11명과 업체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박용 연료 공급 업체대표와 운반·영업을 담당하던 외부 직원들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새남

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 기름을 납품하면서 적정량을 납품하고 남은 기름을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해당업체로부터 빼돌린 기름은 약 51만ℓ로 시가 3억7,000만원에 이르며, 이를 되팔아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상공사와 물류운송을 위해 쓰여야 할 기름이 육상용 기름으로 둔갑되고,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 세탁공장 등에 팔려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한 농업인 가운데는 해

상용 bunker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구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업체는 기름을 제조·혼합할 자격이 없는데도 값싼 bunker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만들어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bunker유는 육상 bunker유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황(S) 함유량 최대 13배 많아 육상 기계에서 사용될 경우 고장은 물론 대기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군산=김갑관 기자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노인 교통사고 예방활동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는 18일 관내 아파트 상가 및 시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교통이 혼잡해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시장 곳곳을 순찰하며 무단횡단 금지, 야간에 밝은 옷 입기 등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를 했다. /이삼민 기자

완산경찰, 의경어머니와 연탄봉사 실시

2000장 낙수정경로당 등에 전달... 한마음 워크숍도 진행

완산경찰서는 18일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의경어머니와 함께하는 연탄봉사 및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연탄봉사는 의경어머니회에서 연탄은행에 직접 기부한 연탄 2,000장을 서장을 비롯한 의경어머니회 및 112타격대, 방범순찰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낙수정경로당 등 2개소에 전달했다. 연탄봉사 후에는 수고한 대원들을 격

려하기 위한 짜장면 봉사 및 한마음 워크숍을 진행했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의경어머니회 및 대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연탄봉사를 하는 등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원들이 건강하고 보람있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경어머니회와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비응도서 어선 전복... 선원 모두 구조

군산 비응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선원 모두를 구조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군산 비응도 서방 4km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1.9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접수돼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어선은 오후 6시께 군산 연도에서 군산 내항으로 운항하던 중 추진기에 그물이 걸려 표류하기 시작했

다.

사고 당시 해가 진 상황이라 시계가 제한돼 사이렌과 핸드폰 불빛 등을 이용해 사고 어선을 발견해 구조할 수 있었다. 승선원들은 몸이 젖은 채로 뒤집힌 어선 위에 있어 저체온증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을 예인하고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수확철 농가 돌며 농작물 흠친 부부 구속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가를 돌며 농작물을 흠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부부 A(38,남)씨와 B(38,여)씨를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순창군 금과면의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건고추 40근을 훔치는 등 8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라북·남도 돌며 15곳에서 모두 820만원 상당의 건고추, 들깨, 마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트카를 타고 인적이 드문 밤에만 활동했으며 농작물 대부분 시정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침입해 훔치기 쉽고 소매점에 판매에 용이한 점을 노렸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지검, 변론기일제 도입 실시

전주지검은 변호인이 검찰에 사전 면담을 요청하면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정해 변호하는 '변론기일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변론기일제는 사전 신청을 받은 사건의 면담을 정해진 기일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검사가 기록검토를 마치고 변호인 면담을 진행,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은 사전 신청을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금요일 오후 2~4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체포나 구속 등 신병 관련 사건은 예외적으로 변론기일 외 시간에도 면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검찰은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예외사항을 보완하고 순·역기능을 입체적으로 분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